

고려청자에 취하다



국립광주박물관, '고려음-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전 내년 3월20일까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구 등 250점

'흑유완', '청자 참외모양 주자', '청자 주자와 받침'...

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다. 특히 다기(茶器)와 주기(酒器)는 비색청자, 상감청자로 제작돼 왕실과 귀족 문화를 대표했다. 다기와 주기는 왕실이나 귀족, 사찰 스님, 문인들 사이에서 차 문화가 성행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술 문화도 널리 퍼져 있었다. 왕실에서는 공식 행사에 술이 빠지지 않을 만큼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다. 고려의 발전된 기술로 세련미 넘치는 다양한 청자 도구가 제작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고급 소장품이 대규모로 광주에 소개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오는 3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고려음(高麗音)-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고려청자의 쓰임새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의 국립박물관과 유관기관이 소장한 도자기 중 대구와 주기 중 250여 점을 엄선했는데, 저마다 고려시대 특유의 정밀한 세련미가 느껴진다.

전시는 차와 술 문화를 나누어 소개된다.

1부 '고려시대 차와 술 문화의 유행과 수입 도자기'에서는 고려청자로 제작된 차와 술에 관련된 도구를 알아본다. 당시 새로운 음료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제작된 도구들이 쓰였다. 도자기는 보온에 적합할 뿐 아니라 색과 조형에 따라 다양한 풍미를 발했다. 개성의 고려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도자기는 값비싼 수입품이었다.

2부 '고려청자, 문화를 마시며'에서는 전성기를 맞은 차 문화와 다기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다도구의 수요가 늘었는데 특히 찻잔으로 사용된 완(碗)의 수요가 많았다. 당나라 육유의 '다경'에는 '청자는 얼

음과 같고 백자는 눈과 같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청자와 백자가 다도구로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청자 주기의 흐름과 주류의 변화가 이를 담은 도구에 미친 과정을 조명하는 공간도 있다. 제3부 '고려청자, 예술에 취하다'에서는 중앙박물관 소장의 시(詩)가 새겨진 도자기를 살펴볼 수 있다.

"하늘이 허락하거든 낙잔째 술을 마실 수도 있네./ 석잔의 술은 모두 다 마셨지./ 어떻게 마셨는가 두잔째 술은./ 역시 웃음피고 넉넉히 마셨지./ 낙잔째 술을 웃으며 마신다"(三盞詩-석잔을 마시며 짓는 시)

고려시대 연례는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품계에 따른 주례(酒禮)가 존재했다. 왕실을 비롯한 지배계층에서 술을 즐겨 마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새로운 종류의 술이 들어오면 술을 담는 그릇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

특히 유연한 곡선 형태와 아름다운 무늬의 매병은 일상에서 액체 음료를 담는 그릇으로



참외모양 주자

쓰였다. 고려 목간(木簡)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매병을 '준(樽)이라 불렀고 꺾이나 참기름을 담은 선물용으로 활용했다.

4부 '고려청자와 함께 묻히다'에서는 차와 술에 관련된 도구에 초점을 맞췄다. 개성에 위치한 고려 고분 외에 각 지역 무덤에서 확인된 차와 술 관련 부장품을 통해 옛 사람들의 생각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청자 술잔은 꽃 모양의 작은 잔과 잔받침이 조화를 이룬다. 술잔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잔을 뒤집어 받침에 올려두도록 고안돼 있어, 편리함과 조형미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은 내년 3월 20일까지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광주박물관 제공>



김영태 작 '도시와 기억-광주&부산&서울'

조각난 형상, 새로운 풍경

담양해동문화예술촌 내년 3월6일까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보는 이미지가 전제로서 인식되는지, 더 나아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 등 조각난 형상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전시회가 열린다.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은 내년 3월 6일까지 아레아갤러리에서 '경계: 형태와 의미'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작가를 초청했다.

김영태 사진 작가는 도시의 사진을 끊임없이 중첩해 낯선 도시의 풍경을 만든다. 작가는 사진을 찍는 행위로 각 도시의 기억을 기록하고, 앵글 속에서 다시 중첩하면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간다. 다양한 시간이 혼재된 듯한,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순간들을 '한 화면'에서 만나는 경험은 색다르다.

윤희수 작가는 '채집'이라고 명명한 행위를 통해 도시의 종이 인쇄물을 콜라주, 새로운 도시 풍경을 그려나간다. 의미의 해체와 재구성의 반복 속에서 도시는 평면성을 넘어 입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허욱 작가의 작품은 평면과 입체의 경계에 놓여 있다. 캔버스 조각들의 유기적인 겹침과 연결을 통해 독자적인 형태를 구성, 익숙한 이미지를 낯설게 느껴지게끔 한다.

해동문화예술촌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주요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070-7706-073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31일까지 사용

기한내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발급·재충전된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이 오는 31일로 마감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960여 곳이다. 공연·전시·영화·스포츠 관람과 도시·음반·수공예품·체육용품 구입이 가능하다. 온라인 가맹점을 통한 문화 활동 분야가 확대돼, 영화·TV 등 영상 관람이 가능한 넷플릭스·유튜브·왓챠·웨이브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 외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10만원씩 지원되는 카드다. 잔액은 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와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연락하면 확인 가능하고 내년 발급 개시일은 2월 3일이다. 문의 062-670-7442/744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800년 은행나무 사계절 다른 풍경

30여년인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나무와 한국의 산천을 화폭에 담은 작가도 800살 먹은 은행나무 앞에서는 말을 잃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원도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 34m에 이르는 은행나무는 숲한 세월을 살아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고, 그 나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위안을 얻었다.

작가는 2년에 걸쳐 사계절을 지나는 은행나무를 그리기 시작했다. 양상했던 가지에 싹이 돋고, 초록빛이 나오고, 노랗게 물이 들고, 다시 잎을 떨구며 맨몸이 돼 하얀 눈을 이고 서 있는 은행나무는 어쩌면 인생과 닮은 생각도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갤러리에서 열리는 서양화가 최선길 작가 초대전 '천년의 노래 songof1kyears' (2022년 1월9일까지)에는 작가가 2년간 그려온 수십점의 은행나무 유화작품과 '일기처럼' 그려나간, 풍경을 담은 소품 등 모두 70여점이 나왔다.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작품은 은행나무를 그린 6m 대작 '천년의 노래'다. 작가는 사계절을 담은 대형 작품을 그렸는데 광주 전



광주롯데갤러리에서 열리는 최선길 '천년의 노래' 전.

최선길 '천년의 노래' 전, 내년 1월9일까지 광주 롯데백화점 갤러리

시에서는 여름 풍경을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온통 초록으로 몸을 치장한 은행나무의 질감을 세세하게 묘사한 붓터치는 살아있고,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초록빛 바람이 불어오는 듯해 시원한 그늘 아래 쉬어가고 싶은 마음도 든다.

반계리 은행나무의 봄, 가을, 겨울 풍경은 또 다른 유화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대작을 뺀 모든 작품은 나무 앞에 이젤을 펴고 한 여울 띄우며 별과 겨울 추위를 견디며 작업한, 진정한 '사생(寫生)'으로 사실감이 돋보인다.

전시장 한 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54점의

소품은 '서정적인 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작업실이 있는 원주시 부론면 시골 마을 풍경이 담긴 작품은 마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맑은 기운과 소박한 풍경들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길가의 잡초, 버려진 낡은 집,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 어느 날 올려다본 하늘, 운전 중 만난 노을, 추수가 끝난 텅 빈 논밭 등 일상의 모습이 담긴 작품은 한 점씩 소장하고 싶게 만든다.

전시에서는 '바람' 연작 등 또 다른 대표작도 나왔다.

최 작가는 서울대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화여대 강사 등을 역임했다. '나무의 노래', '바

람이 머무는 곳'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개인전을 열어왔다.

최 작가는 "묵묵히 천년을 버티 온 나무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을 건네준다"고 말한다.

한편 광주롯데갤러리는 앞으로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갤러리 운영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내년 1월 광주의 젊은 예술가들과 국내외 유명 작가들을 매칭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